



특 집

최근 돼지고기 시장변화와 대응방향

칠레 양돈산업 현황과 FTA체결로 국내 식육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기고문의 의뢰를 받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FTA체결로 인한 국내 식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양돈산업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식육유통산업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이 결론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10년간의 가공산업과 유통산업에 종사한 경험, 4년간 칠레를 왕래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칠레에 상주하면서 알게 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규모면에서 도저히 수출산업이 될 수 없는 칠레의 식육가공산업이 어떻게 수출산업이 되었는지, 그리고 식육가공산업의 원료를 공급하여 주는 양돈산업이 수출과 연관되어진 부분에 대해 소개하면서 국내 식육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식육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칠레 FTA체결에 의하여 10년내에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된 칠레산 돼지고기가 국내 식육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내의 식육유통시장은 국내산과 수입산이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별개의 유통흐름을 갖고 있고, 이미 냉장육 유통으로의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거리상으로 냉장육 수출이 불가능한 칠레산을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이강운 대표
Dizgate Ltda.(칠레)

국내산과 동일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각 없는 유통업자의 손에 의하여 해동 후 국내산으로 둔갑이 되어 판매될 수 있는 소지는 있으나 그 양이 극히 일부 미미할 정도라 전체 유통시장을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칠레산 냉동식육 선도 타수입품에 비해 월등

칠레산이 다른 수입산에 비하여 국내 유통시장에서 급속도로 인지도가 높아진 이유는 칠레산이 냉동 선도 유지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냉동품을 해동 후 냉장으로 전환을 시켜도 신선도 유지가 국내산 냉장품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칠레의 도축·가공장들이 보유한 시설이나 설비 수준은 유럽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고,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5개 공장 중 2개는 최근 2년내에 지어진 초현대식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가공장의 운영시스템 또한 유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값싸고 못사는 남미국가라는 이미지를 연상하면 절대 상상해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국내 식육유통시장에로의 물량 공급

또 다른 이유는 절대 국내 식육시장에서 물량이 넘쳐날 정도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칠레가 보유하고 있는 도축가공능력, 두 번째가 전체 원료의 부족, 그리고 세 번째가 수출 가능국가의 증가입니다.

가. 칠레의 도축·가공 규모

현재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돼지 도축·가공장은 5개입니다. 이중 AGROSUPER라는 회사가 2개, FRIOSIA 1개, LO VALLEDOR 1개, FAMISA 1개입니다. 전체 도축·가공능력은 AGROSUPER가 일 12,000두 도축에 10,000두 가공, FRIOSIA가 일 4,000두 도축에 3,000두 가공, LO VALLEDOR가 일 2,000두 도축에 1,000두 가공, FAMISA

가 일 1,200두 도축에 1,000두 가공능력입니다. 규모면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출품을 만들어내는 가공능력은 도축능력의 50%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일 15,000두 정도입니다.

실제 10월 현재 가공은 일 11,650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칠레가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입니다. 최초 몇 년간은 연간 4,000톤을 넘지 못하였고, 그것도 일본이 전체 수출량의 92%를 차지하였습니다. 실제 이 때 당시만 해도 도축생체중량이 평균 95kg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7년부터 10,000톤 이상이 수출되었고, 올 2004년 7월까지의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가 증가한 81,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출용 돼지의 도축생체중량 또한 110kg~120kg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수출물량이 늘어나니 당연히 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생돈

〈표 1〉 칠레 돼지 도축·가공장의 도축·가공능력

구 분	일 도축능력(두)	일 가공능력(두)	10월 일일 가공(두)
AGROSUPER	12,000	10,000	8,000
FRIOSIA	4,000	3,000	2,500
LO VALLEDOR	2,000	1,000	800
FAMISA	1,200	1,000	350
총계	30,000	15,000	11,650

〈표 2〉 칠레 돼지 도축·가공장의 원료 공급능력

	모돈 보유(두)	일 공급능력(두)	일 가공능력(두)	자체 원료 공급 비율
AGROSUPER	100,000	9,720	10,000	97%
FRIOSIA	16,000	1,550	3,000	51%
LO VALLEDOR	5,000	480	1,000	48%
FAMISA	2,500	240	1,000	24%
총계	123,500	11,990	15,000	80%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자체 수직계열화가 안되어 있는 도축·가공장은 비싼 값에 원료를 구매하여야 하니까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실제 가공 능력은 8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수출용 원료의 부족

〈표 2〉에서 보시다시피 AGROSUPER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가공장들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50%도 안됩니다. AGROSUPER 혼자서 보유하고 있는 모돈의 규모는 칠레 전체 모돈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가공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 모돈의 81%나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공능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 30,000두 정도의 모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쪽 현지에서 느끼는 타국가들로부터 칠레로 물리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숫자는

모돈 30,000두 규모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돈육 수출판매 지역의 확대

그리고 판매지역도 최초 일본으로 연간 3,000톤 정도 수출하던 것이 올해 2004년도 7월까지만 해도 81,370톤을 수출하면서 약 15개 국가 이상 늘어난 실정입니다.

칠레가 전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은 국가와 체결한 국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판매지역은 더 확대될 것이고, 한

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부위별 구매가격이 한국보다 더 비싸게 구매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칠레의 도축·가공업자들이 굳이 한국으로 싸게 주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올해 7월까지의 전체 수출 물량 중 일본이 가장 많은 32.7%인 26,608톤을 수입했고, 대부분이 돼지 한 마리를 부위별로 절단하여 8개 부위를 FULL SET로 가지고 가고 있고, 또한 전세계 식육구매자 중 제일 큰 구매자인 NIPPON MEAT PACKERS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외로 멕시코에서의 구매가 18.0%인 14,647톤으로 한국보다 많은 것은 의외입니다. 멕시코가 칠레와는 MERCOSUR라는 자유무역지

〈표 3〉 칠레의 돈육 수출판매 지역

국 가	비 율	수출물량(톤)	월 평균(톤)
일 본	32.7%	26,608	3,800
멕 시 코	18.0%	14,647	2,090
한 국	13.4%	10,904	1,550
중 국	9.3%	7,567	1,080
영 국	4.8%	3,906	560
독 일	4.5%	3,661	520
쿠 바	2.4%	1,953	280
네덜란드	1.5%	1,220	170
기 타	13.4%	20,904	2,980

(* 수출물량은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물량임)

대 협정 국가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의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이 무관세가 적용되어 한국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MERCOSUR란 중남미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중남미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놓고, 서로 관세 없이 상품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협정의 최대 수혜자들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제품 생산업체들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흡수 합병을 통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전환하여 판매지역별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특히 남미지역에서는 주로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생산, 남미지역에 무관세로 판매되고 있고, 전기·전자 제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자동차가 이러한 이점을 살리지 못해 전체 시장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다 FTA체결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요 근래에 와서 다시 3위 정도로 회복했을 정도입니다. 대우와 쌍용은 이미 미국의 GM 소속으로 더 이상 대우의 이름으로 팔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기·전자 제품 쪽에서는 LG가 브라질에서 생산한 제품을 남미지역에 판매하면서 이점을 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4. 10년내 무관세 효과는 판매자의 이익

칠레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칠레의 대외인지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며, 이는 칠레 상품의 대외판매력의 확대로 이어져 한국으로의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칠레에서의 돼지고기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식육 수입업자들이 타국가의 수입업자들과 위에서 말씀 드린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구매경쟁을 하여야 하는데, 판매자에게는 좀 더 비싼 값을 부르는 구매자에게 판매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실제 10년내 무관세라는 것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더 비싼 값에 팔아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굳이 그 혜택을 구매자에게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받고 싶겠지만 이미 선택권이 판매자에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5. 칠레 내수시장 가격 수출확대로 인해 35% 상승

칠레의 내수시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돈육 소비량이 증가하였고, 1990년 1인당 9.24kg이던 것이 2003년 19.87kg으로 증가, 10여년 사이 100%가 넘게 신장하였습니다. 이 수치도 수출물량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 내수시장으로의 공급이 떨어져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 쇠고기와 닭고기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약간 떨어진 수치입니다. 쇠고기는 24.14kg, 닭고기는 28.83kg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칠레의 경제 성장률은 현 LAGOS 대



통령이 들어서기 전 7~8%이던 것이 현 정부에서 4%대로 떨어졌다가 요 근래 다시 7%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식육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전세계 공통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칠레 내수시장에서의 소비는 늘어나던가, 아니면 꾸준히 유지되던가 할 것입니다.

6. 정부와 식육가공업자들 시장 개척의지 강해

실제 칠레의 식육가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 개발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최초 일본으로 수출이 시작되던 1993년도 일본의 구매자들이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는 칠레의 식육가공시장을 거저 줍다시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품의 스펙은 생산성과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그 때 당시에 내수시장이 수출시장보다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시장에 의존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몇 년 전부터 펼친 칠레 정부의 개방정책과 자체적인 개발노력에 의하여 이제는 세계시장에

서의 판매 활로도 급속도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칠레의 농림부 위생국에는 매주 초청에 의한 타국가들로부터 식육 수출관련으로 인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전세계에 나가 있는 PRO CHILE에서는 홍보활동과 함께 시장정보를 수집해 관련업체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식육·가공업자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전세계 식품관련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얼마 안되는 물량이지만 자기들을 소개시키고, 좀 더 비싼 값에 물건을 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7. 지형적인 이점과 한개 기업의 시장 지배구조가 수출산업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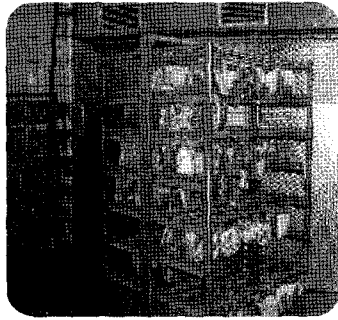
칠레의 돈육가공산업이 수출산업이 된 것은 참으로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돈의 규모, 도축·가공 규모, 내수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출산업이 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수출품 10위 안에 드는 수출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지형적인 이점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처럼 한개 기업이 차지하는 전체 산업에서의 지배구조가 이를 가

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칠레는 대륙에 붙어 있지만 동쪽으로는 3,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안데스 산맥을 이루며 만년설로 덮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대평원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막을 만들어 주었고, 서쪽으로는 최북단 지점에서부터 남단 지점까지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고, 북쪽으로는 사막지대가, 남쪽으로는 바다와 남극이 전세계에서 질병으로부터 가장 안전지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이점은 전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 질병에 의한 공급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안전지대인 칠레로 수요가 몰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와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 전세계에서 쇠고기 수요가 돈육소비로 이전되면서 돈육소비의 증가로 칠레로의 구매 요청은 도축·가공능력의 두 배가 넘는 요청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체 돈육시장의 65%를 쥐고 있는 AGROSUPER라는 회사가 있었기에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칠레에서는 가장

탄탄한 대기업에 속하는 AGROSUPER는 자체적으로 돼지고기, 소시지, 연어, 칠면조, 와인, 닭고기 등의 사업이 각 품목별로 100% 계열화 되어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원료를 생



산하고 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 내수 시장보다는 좀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출시장 쪽으로 전환하면서 수출을 주도하였고, 덩달아 수출의 규모가 안되는 몇 개의 도축장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도축·가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수출이 개시되던 1993년도 도축중량이 95kg이 안되던 것이 이젠 110kg을 넘었고, 모돈당 산자수도 평균 24.5두로 확대시키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8. 모돈농장 확대 프로젝트 진행

이렇게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은 식육가공산업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원료 수급이 가능한 AGROSUPER를 제외한 나머지는 35%의 원료를 놓고

원료 구매경쟁을 하여야 하는데, 그 원료 자체가 나머지도 축·가공장이 보유한 가공규모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추가적인 구매요청을 수없이 받고도 물품을 생산해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원료 생산 시장에 얼마전 칠레에서도 모돈농장 확대에 대한 프로젝트가 발표되어 추가적인 원료생산이 가능하여 졌습니다. 지난 9월 모돈 4,800두 농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에는 모자라는 수치가긴 하지만 칠레의 돈육가공 시장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봐서는 칠레 내에서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것입니다.

9. FTA 효과가 국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위에 열거한 내용을 토대로 FTA로 인한 칠레 식육가공

산업이 국내 식육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염려할 수준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칠레의 식육가공산업이 한국의 양돈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가려면 규모면에서나 가격적인 면에서 아주 갈 길이 멀고, 또한 한국의 식육유통시장이 칠레 입장에서는 향후에는 그다지 큰 이점(메리트)이 있는 시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규모면에서 생산량이 작고, 특히 수출물량은 한국의 내수시장은 부위별 가격의 편차가 심해 구매해 갈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수출규모는 식육가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공능력에서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칠레 내에서 원료의 확대 없이 추가적인 도축·가공규모의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고, 도축·가공사업이 장치산업임을 감안할 때 많은 돈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한 개

기업이 거의 과점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규모의 회사가 달려들기 전에는 그러한 여력이 충분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구매가 격이 동일 품목일지라도 일본보다 낮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수입관세 인하의 효과를 볼 때인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나 가능할 것이고, 칠레에서 타 국가와 맺은 FTA로 인하여 판매 지역이 늘어나면 칠레의 식육·가공업자들 입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걱정은 FTA도 안되어 있는 미국의 쇠고기 식육가공산업이 우리나라의 식육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고, 그 해법을 찾는 데 쏟아붓는 것이 더 나을 지도 모릅니다.

10. 칠레의 양돈 및 식육가공사업은 투자 대상

거꾸로 보면 현재 칠레 내에 존재하는 양돈산업과 가공산업의 이점과 대외 수출여건을 고려한다면 칠레에서의 양돈산업과 식육가공사업은 한국에서 투자 대상으로서의 장

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형적인 이점으로 인한 양돈산업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돼지 구매자들인 식육가공업자들의 수출확대로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위한 원료 공급 부족현상은 지속되어 판매처 확실하고, 땅 값이 싸고, 포도 등 각종 과일 재배가 많아 퇴비 사용이 많으므로 분뇨 처리가 용이하고, 만약 가공까지 이어진다면 식육상품 판매처는 가장 큰 손인 일본과 한국만 상대해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이고, 또한 AGROSUPER라는 거대기업이 버티며 수출산업으로서의 확실한 위치는 지속될 것입니다.

11. 한국에서 사육두수 조절은 경쟁력 확보의 길

한국의 양돈사업자들께서는 질이야 들썩 치더라도, 값싼 수입산이 많이 들어와 그 여파로 정말 정성 쏟아 부으시고, 애 키우듯 키운 돼지 가격이 폭락하여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995년도부터 그렇게 많은 수입산이 들어왔어도 양돈산업은 규모가 늘어나면 늘

어났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일시에 돼지고기 섭취를 중지하지 않는 한은 돼지를 원료로 구매하여야 할 식육가공산업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냉동육과 냉장육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와 특별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식육유통시장의 구조에 적절히 대처하여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많은 나라와 싫어도 FTA를 체결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혼자서 자급자족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듯이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보다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되는 칠레가 돈육가공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켜 수출상위 10개 품목으로 이끌어내 국가경제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는 연구해 볼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양돈**